

Stendhal에 있어서의 정열

원 윤 수

(불문학과 교수)

스팡달에게 있어 정열은 자기 삶을 고귀한 것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정열의 유형을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모르와(Maurois)도 지적했듯이 스팡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정열이란 사랑이다.¹⁾ 그것은 여인을 정열적으로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정열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연애론』이라는 사랑에 관한 한 권의 책을 내놓고 거기에서 진실된 사랑이란 정열적인 연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정열적인 연애란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만을 생각하고 위선이라든가 허영심이 없는 승화된 정열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와 같은 정열은 그의 삶에 대한 사랑에까지 확대된다. 그러한 정열적인 사랑을 느낌으로 해서 인간은 비로소 행복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정열은 삶에 대한 사랑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사랑을 한다는 것, 즉 그러한 정열적인 삶을 영위하여 행복을 누리겠다는 것, 그것은 스팡달이 평생 지녀온 꿈이었고 하나의 변함없는 이상이였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한 정열적인 삶에의 의지가 있음으로 해서 스팡달은 부친과 라이안느 신부로 대표되는 압제에서 벗어나 불량배가 되지 않고 부정적인 교육을 극복하고 거기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따라서 그 정열의 생성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게 있어서 정열의 참뜻과 그 작용을 알아보는 것은 청년 스팡달의 모습과 성년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그 정열이 어떠한 성숙과정을 거쳐서 그의 작품에 결실되는가를 엿볼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그리고 스팡달이 굳게 지킨 정열을 그가 살아온 시대의 사상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시대사조인 낭만주의와 관련지어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스팡달이 지녔던 특이한 사상적인 위치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어서 스팡달 자신의 여인편력을 알아보고 그의 소설작품 속에 나타난 정열적인 삶의 이모저모를 고찰함으로써, 정열이 있으면 절대로 지루하지 않고 정열이 없으면 열빠진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그의 본뜻을 살필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정열의 모태는 어린 시절에 지닌 꿈이 될 것이다. 음울하고 지겨운 어린 시절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이러한 꿈을 지녔었기 때문인데, 그 꿈은 자기의 가정과 고향에서 해방되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었고, 위선과 저속한 것에서 빠져 나와 새로운 사회에서 스페인식으로 사는 고결한 인간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그르노블

1) A. Maurois: *De La Bruyère à Proust* (Fayard, 1964), pp.155-172.

을 출발하여 파리에 도착하면서 다음과 같은 꿈을 지녔었다고 말하고 있다.

Mon idée fixe en arrivant à Paris, l'idée à laquelle je revenais quatre ou cinq fois le jour et surtout à la tombée de la nuit, à ce moment de rêverie, était qu'une jolie femme, une femme de Paris bien autrement belle que Mme Kubly ou ma pauvre Victorine, verserait en ma présence ou tomberait dans quelque grand danger duquel je la sauverais, et je devais partir de là pour être son amant.

파리에 도착한 다음, 하루에도 너댓번씩 생각하고, 특히 해질녘, 저 몽상의 시각에 늘 생각하곤 했던 것은, 아름다운 어떤 여인, 귀족리부인이나 저 가련한 빅토린느와는 전혀 다른 아름다움을 지닌 파리의 어떤 여인이 내 앞에서 넘어져든지 혹은 어떤 큰 위험에 처하게 되어 내가 그녀를 구해주게 되고, 그것때문에 그녀의 애인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었다.²⁾

그러한 상상력을 키워주고, 꿈의 세계를 가꾸어 준 것은 다름아닌 독서였다. 모친이 사망한 후, 외부사람들과의 접촉이 드물어진 그의 가정은, 어린 스땅달에게 제 또래의 어린 이들과 뒤섞여 노는 것까지 허용치 않았다. 거기다가 그는 부친의 서투른 교육과 물이해의 표적이 되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혼자 공부를 하게 되었고, 혼자 놀았으며 자기 즐거움과 고통을 혼자서 세김질할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어린 스땅달은 내성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과는 다른 세계를 꿈꾸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불행한 어린 시절이 스땅달의 내적인 생활의 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그 자서전적인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블랙트 트루가 인용한, 무니에가 쓴 어린이의 내성적 현상에 관한 고찰을,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보낸 스땅달에 있어서 독서의 중요성이 얼마나 컸었던가를 살피기 위해 다시 한번 음미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Il y a bien des manières de refuser la réalité. A leur origine on trouve presque toujours un échec affectif, et plus précisément un échec affectif infantile. En même temps qu'un égocentrisme puissant, l'enfant tourne vers le monde d'inépuisables réserves d'accueil et d'affection. Il ne connaît pas l'appréhension objective et froide de la réalité. (...) Il devient sauvage, rêveur, «dans la lune», distrait, il sursaute à l'appel, il s'irrite et boude pour un rien, délaisse l'initiative et le combat. On le voit rechercher la solitude, les jeux paisibles, ou dans les yeux communs, les rôles passifs, préférer la compagnie des livres à celle des enfants de son âge. On méconnaît le danger de sa conduite, car il est studieux dans la mesure où les études favorisent le repliement.

현실을 거부하는 데에 여러 가지의 유형들이 있다. 그 유형들의 근원을 따져볼 때 우리는 거의 언제나 감정상의 어떤 실패, 즉 엄밀히 말해, 어린 시절의 감정상의 실패에 봉착하게 된다. 강한 자기 중심적 성향과 동시에 어린아이는 자신에게 끝없는 환대와 사랑을 베푸는 세계로만 향한다. 그는 현실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 그는 비사교적이 되고, 몽상적이 되며, 《정신을 탄 데 팔고 있으며》 명해 지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부르던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무 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거나 토라지고, 주도적 행동이나 싸움을 포기한다. 그리고는 고독과 조용한 놀이물 추구하게

2) Stendhal: *Œuvres intimes* (Pléiade, 1955) p. 311.

나 또는 많은 사람 앞에서 수동적 위치에 서려 하고, 같은 또래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 것 보다는 책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그의 행동이 갖는 위험은 동한시 되곤 한다. 왜냐하면 공부에 내성적 성향을 유리하게 함에 따라 그는 학구적이 되기 때문이다.³⁾

그리하여, 외조부, 엘리자베드, 그리고 로맹 가농 등, 그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 가족들이 암시해 준 이상적인 세계의 꿈을 독서가 풍요하게 해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하나의 내적 세계를 마음 속에 품게 되고, 독서에 의해 그 세계는, 그가 현실속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아름다운 세계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독서는 그에게 있어 《그의 동상을 위한 일종의 도약판》⁴⁾이었다.

어린 스탕달의 독서는 두가지로 나누어졌는데, 그것은 그의 외조부가 그에게 보라고 주는 책들과 그가 몰래 집안의 서가에서 훔쳐보는 책들로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외조부는 자신이 열렬한 독서가로서 스탕달에게 독서의 취미를 갖게 해 준 사람의 하나이다.

Il (grand-père) me prêta, mais à l'insu de sa fille Séraphie, le *Roland furieux*, traduit ou plutôt, je crois, imité de l'Arioste par M. de Tressan. (...)

Arioste forma mon caractère, je devins amoureux fou de Bradamante que je me figurais une grosse fille de vingt-quatre ans avec des appas de la plus éclatante blancheur.

그는(외할아버지) 당신의 딸인 세라피 몰래 드 트레쌍이 번역했던지 아니면 오히려 아리오스트를 모방하여 썼다고 생각되는 『격노한 롤랑』을 내게 빌려 주셨다(...).

아리오스트는 나의 성격을 형성시켜 주었고, 나는 아주 눈부시게 하이안 육체적 매력에 지닌, 24세의 통통한 아가씨로 상상해 보곤 하였던 브라다망트(격노한 롤랑의 여주인공)를 미칠 듯이 사랑하게 되었다.⁵⁾

따라서 그 어린 시절의 독서가 그에게 공상적인 감동에 대한 취미를 갖게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모친이 사망한 이후, 웃음을 잃고 있던 그가 『동키호테』를 읽으면서 미칠듯한 웃음을 되찾는 장면이 『앙리 브뤼클라르의 생애』에서 생생하게 회상되고 있으며, 그 책의 발견이 《내 생애 가장 위대한 시기였다》⁶⁾고 쓰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판화가 들어 있는 몰리에르의 책도 발견하고, 그외에 수 많은 책을 훔쳐 보게 되는데, 그것은 어린 스탕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소일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Je ne saurais exprimer la passion avec laquelle je lisais ces livres. Au bout d'un mois ou deux je trouvai *Felicia ou mes fredins*. Je devins fou absolument, la possession d'une maîtresse réelle, alors l'objet de tous mes vœux, ne m'eût pas plongé dans un tel torrent de volupté.

Dès ce moment ma vocation fut décidée: vivre à Paris en faisant des comédies comme Molière.

3) Paulette Trout: *La vocation romanesque de Stendhal* (Éditions Universitaires, 1970) p. 21. (E. Mounier의 *Traité du Caractère* 引用文의 再引用)

4) 《une sorte de tremplin pour ses rêves》(Ibid., p. 22).

5) Stendhal: *Œuvres intimes*, p. 81.

6) 《la plus grande époque de ma vie》(Ibid., p. 80).

내가 그 책들을 읽었을 때 가졌던 열광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두 달 후에 나는 『Felicia ou mes fredins』을 발견하였다. 나는 아주 반해 버렸는데, 그 당시 모든 내 소원의 표적이었던 여인을 하나 실계로 갖게 되었다고 그와 같은 기쁨의 격류속으로 빠져들진 못했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 나의 천직은 결정되었다. 즉 몰리에르처럼 희극들을 쓰면서 바리에 사는 것이다.⁷⁾

그러나 그의 독서에서, 그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은 루소의 『신 엘로이즈』라 할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행복감과 즐거움 속에서, 방문을 꼭 잠그고 몰래 읽은 그 책은 자신이 건달(coquin)이 되지 않고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었고 설사 건달짓을 하더라도 자신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책은 어린 스팡달에게 이상적인 삶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La lecture de la *Nouvelle Héloïse* et les scrupules de Saint-Preux me formèrent profondément honnête homme; je pouvais encore, après cette lecture faite avec larmes et dans des transports d'amour pour la vertu, faire des coquineries, mais je me serais senti coquin. Ainsi c'est un livre lu en grande cachette et malgré mes parents qui m'a fait honnête homme.

『신 엘로이즈』를 읽은 것과 거기에서 본 생 프뢰(Saint-Preux)의 세심한 양심적 행동은 나를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미덕에 대한 사랑의 흥분 속에서 그 책을 읽고 난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건달 만나니짓을 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나 스스로를 건달이라고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처럼 집안어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몰래 숨어서 읽은 책이 바로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⁸⁾

그의 독서에 있어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독서가 반항과 연결되어 있고 자신이 증오하는 대상들과 대립되는 감정 속에 이루어 졌다는 사실이다. 루소의 작품과 아울러, 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셰익스피어를 읽게 된 계기가 『앙리 브뤼클라르의 생애』 속에서 이렇게 회상되고 있다.

Je crus renaitre en le lisant. D'abord il avait l'immense avantage de n'avoir pas été loué et prêché par mes parents comme Racine. Il suffisait qu'ils louassent une chose de *plaisir* pour me la faire prendre en horreur.

Pour que rien ne manquât au pouvoir de Shakespeare sur mon coeur, je crois même que mon père m'en dit du mal (...). J'ai lu continuellement Shakespeare de 1796 à 1799.

나는 그것을 읽으며 다시 태어난 듯 싶었다. 우선 그는 라신느처럼 우리 집안식구들로부터 칭송받거나 권장되어지지 않았다는 거대한 이점을 갖고 있었다. 나로 하여금 어떤 대상을 몹시 증오케하는 데에는, 집안식구들이 무엇인가 즐겁다고 칭송하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내 마음 속에 셰익스피어의 영향력이 미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가 그에 대해 나쁘게 말했던 것이라고 믿기까지 했다. (...) 나는 1796년부터 1799년 까지 계속 셰익스피어를 읽었다.⁹⁾

7) Stendhal: *Œuvres intimes*, p. 151.

8) Ibid., p. 168.

9) Ibid., p. 226.

독서는 스탕달이 공상의 날개를 펼 수 있게 해 주었으며, 그의 억압된 감정을 해방시켜, 어린 그에게 꿈의 세계에의 문을 열어 주었다. 그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취미를 붙인 독서는 그가 평생동안 자기의 사상을 심오하게 하고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처럼 그의 독서는 공상적 사랑에 대한 꿈을 키워주고 특히 루소의 책은 위대한 사랑을 마음 속에 품게 했으며,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그에게 신비의 세계를 발견하게 하여, 그의 마음 한 구석에 은밀한 비밀을 간직하게 해 주었다. 그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숨막히는 속박을 벗어나서 정열적인 사랑을 실현하고 문학적인 영광을 차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정열이란 어떠한 뜻을 지녔었던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리라. 앙드레 모르와는 스탕달의 정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Les passions sont les seules forces qui hissent l'homme au-dessus de l'animal. Il faut pour cela qu'elles soient sublimées, mais, pour être sublimées, il faut d'abord qu'elles soient. Fabricc, sans l'amour, serait un libertin banal. Le comte Mosca, sans sa passion, ne vaudrait pas mieux que son prince de Parme. Lucien Leuwen n'est arraché à de mesquines susceptibilités que par une passion. Stendhal aime les âmes à l'italienne et préfère leur violence à la tiédeur.

정열이란 인간을 동물보다 높은 존재로 끌어 올려주는 유일한 힘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그 정열은 승화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승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정열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파브리스는 사랑이 없었다면 평범한 방탕아가 되었을 것이다. 모스카 백작에게 그 정열이 없었다면 파르르 대공(大公)보다 나을 것이 없었을 것이다. 루시앵 뢰벤 또한 정열을 통해서만 천박한 감수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스탕달은 이탈리아식 감수성을 좋아하고, 그들의 격렬함을 미지근한 태도보다 좋아하고 있다.¹⁰⁾

여기서 우리는 스탕달의 소설작품 주인공 이름들을 작자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를 정신적인 토대 위에서 본다는 진제를 둔다면 그 정열이 스탕달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성을 띠고 있는가를 큰 무리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정열은 막연한 공상만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연애론』의 제 1장을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다. 《나는 정열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그것의 모든 참된 발전은 하나의 미의 성격을 지니는 그러한 정열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¹¹⁾ 그 참된 발전이 모두 미의 성격을 지닌다고 한 것은 그의 정열이 무의미한 감정의 토로가 아닌 내용을 지니고 있고, 심미관과 직결되어 있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려 준다. 그는 미에 대한 사랑과 연애가 어떻게 서로서로 생명을 부여해 주고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0) Maurois: op. cit., p. 170.

11) 《Je cherche à me rendre compte de cette passion dont tous les développements sincères ont un caractère de beauté.》

(Stendhal: *Œuvres complètes III. De l'Amour*, T.I (Edito-Service S.A., Genève), p. 13.)

La vue de tout ce qui est extrêmement beau, dans la nature et dans les arts, rappelle le souvenir de ce qu'on aime, avec la rapidité de l'éclair. C'est que, par le mécanisme de la branche d'arbre garnie de diamants dans la mine de Salzbourg, tout ce qui est beau et sublime au monde fait partie de la beauté de ce qu'on aime, et cette vue imprévue du bonheur à l'instant remplit les yeux de larmes. C'est ainsi que l'amour du beau et l'amour se donnent mutuellement la vie.

자연이나 예술작품에서 극히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보면,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억이 섬광처럼 빠르게 되살아난다. 왜냐하면 살즈부르크 염광(鹽鑛)속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결정체가 가득 배달된 나뭇가지의 메카니즘에 따라,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고귀한 것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상대의 아름다움의 일부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순간적인 행복의 그 예기치 않았던 광경이 눈에 눈물을 가득차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과 연애는 서로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다.¹²⁾

그는 『연애론』 중에서, 사랑의 유형을 <정열적 사랑>, <취미적 사랑>, <육체적 사랑>, <허영적 사랑>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그중에서 진실되고 깊어치 있는 것은 오직 정열적 사랑뿐이라고 스탕달은 주장하고 있다. 그 사랑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대상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존재치 않으며 허영심도 완전히 가신 사랑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상력이 크나큰 역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탕달의 유명한 <결정 작용>의 이론이 등장하게 된다.

On se plaît à orner de mille perfections une femme de l'amour de laquelle on est sûr; on se détaille tout son bonheur avec une complaisance infinie. Cela se réduit à s'exagérer une propriété superbe, qui vient de nous tomber du ciel, que l'on ne connaît pas, et de la possession de laquelle on est assuré. Laissez travailler la tête d'un amant pendant vingt-quatre heures, et voici ce que vous trouverez: Aux mines de sel de Salzbourg, on jette, dans les profondeurs abandonnées de la mine, un rameau d'arbre effeuillé par l'hiver; deux ou trois mois après on le retire couvert de cristallisations brillantes: les plus petites branches, celles qui ne sont pas plus grosses que la patte d'une mésange, sont garnies d'une infinité de diamants, mobiles et éblouissants; on ne peut plus reconnaître le rameau primitif.

Ce que j'appelle cristallisation, c'est l'opération de l'esprit, qui tire de tout ce qui se présente la découverte que l'objet aimé a de nouvelles perfections.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여인을 수많은 완전미로 치장하는 것을 즐긴다. 자신의 모든 행복을 더없이 호뭇해 가지고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떨어진 것 같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자신의 것일엔 틀림이 없다고 생각되는 멋진 재산을 과장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사랑하는 남자의 머리를 스물 네 시간동안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해 보라.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살즈부르크 염광(鹽鑛)에서 폐광의 저 깊은 곳에, 겨울에 잎새가 다 떨어진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넣는다. 두세 달 후 꺼내면 그것은 찬란한 결정으로 뒤덮여 있다. 깨세의 다리보다도 굵지 않은 가장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실재없이 번하며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결정체들이 수없이 맺혀, 애초의 나뭇가지 모습은 다시 찾

12) Stendhal: *Œuvres complètes III, De l'Amour*, T.I, p. 63.

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내가 결정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닌 새로운 완전미를 발견하는, 정신의 작용인 것이다.¹³⁾

따라서 우리는 스탕달의 정열적인 사랑 속에서 꿈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으며, 그의 일생을 정열적인 꿈이 떠나지 않는 젊음이 지배케 한 요인을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의 정열은 꿈을 동반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울 수 있었다. 그는 『앙리 브뤼클라르의 생애』에서 《몽상이야말로 내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심지어는 재치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었음을 나는 알고 있다.》¹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스탕달에게 있어, 꿈이 그의 정열을 품게 한 근원도 되고 그것에다 새로운 힘을 주고 있는 활력소이기도 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스탕달이 사귄 수많은 여인들은 후세의 연구가들에 의해 철저히 파헤쳐져 있다. 그 연구들은 그 여인들이 스탕달의 글 속에서나, 일기 등에서 그의 유명한 결정작용에 의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실인물들을 재현시킴으로써 명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 연구자들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러한 여인들과의 사랑에서 스탕달이 성공을 거둔 예는 몇몇 사람에게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는 사랑에 있어 행운을 차지하였다기 보다는 불운한 연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불운을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만족되고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사랑은 그의 정열을 불사르는 꿈을 죽여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스탕달에 있어서 <불행한 연인 *amant malheureux*>이라는 어휘가 지니는 의미가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앙리 브뤼클라르의 생애』 서두에 50년간 사는 동안 그가 사랑해 온 여인들의 이름을 나열해 놓고 스탕달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La plupart de ces êtres charmants ne m'ont point honoré de leurs bontés; mais elles ont à la lettre occupé toute ma vie. A elles ont succédé mes ouvrages (...).

L'état habituel de ma vie a été celui d'amant malheureux, aimant la musique et la peinture, c'est-à-dire à jouir des produits de ces arts et non à les pratiquer gauchement. J'ai recherché avec une sensibilité exquise la vue des beaux paysages; c'est pour cela uniquement que j'ai voyagé. Les paysages étaient comme un *archet* qui jouait sur mon âme, (...).

이 배후적인 여인들은 대부분 내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영광을 베풀진 않았다. 그러나 그녀들은 분자 그대로 내 전 생애를 차지하였다. 그녀들의 뒤를 이어 내 작품들이 나왔던 것이다(...).

내 생애의 보통 상태는 음악과 그림을 사랑하는, 즉 그러한 예술작품들을 즐기는 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서투르게 해 보려고 하지는 않는, 불행한 연인의 그것이었다. 나는 섬세한 감수성을 지니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찾아보려 했다. 내가 여행을 했던 것은 오로지 이런 이유에서인 것이다. 그 풍경

13) Stendhal: *Œuvres complètes III, De l'Amour*, T.I., pp.19-20.

14) 《Je vois que la rêverie a été ce que j'ai préféré à tout, même à passer pour homme d'esprit.》 (Stendhal: *Œuvres intimes*, p.14.)

들은 나의 영혼 위에서 작동하는 바이올린의 활파도 같았다(...).¹⁵⁾

그러나 스탕달은 거짓 정열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다.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 있으리라고 기대되던 행복이, 실제로 거기에 이르고 보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정열을 스탕달은 거짓된 정열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한 거짓된 정열에 빠지기엔 그는 너무도 자신에 대하여 준엄하였다 할 것이다. 그는 일기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마치 재산자로서 관찰하듯이 날날이 분석하고 비판을 하여 자신을 속이거나, 근거없는 환상에 우쭐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대체로, 나는 자신이 매우 정열적이라는 것과 그 때문에 판단을 잘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¹⁶⁾ 그리고 이렇게도 쓰고 있다. 《나는 너무 민감해서 꿈정하지 못하다.》¹⁷⁾ 그리하여 스탕달은 자기가 무엇보다도 증오하는 거짓과 위선과 과장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나치게 민감해서, 말 한마디나, 보일 듯 말 듯한 제스처 하나에 행복의 절정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면 또한 그러한 것에 의해 쉽사리 절망도 하는 자신이 과장된 감정에 젖어 거짓과 위선에 빠져드는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그는 게을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정열적인 인간인 스탕달은 그 정열적인 기질로 인해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피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는 여동생 쾨링느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스발 부인의 작품 『행복에 미치는 정열의 영향에 대하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스탕달이 지니는 진지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정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 글에서 우리는 스탕달의 정열관과 그가 빠지지 않으려고 경계한 오류가 무엇인지를 잘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Il y a deux ou trois grands défauts dans cet ouvrage («De l'influence des passions sur le bonheur», par Madame de Staël); ils peuvent tous se rapporter à une cause: l'exagération de l'auteur. Mme de Staël n'est pas très sensible et elle s'est crue très sensible; elle a voulu être très sensible, elle s'est fait, dans le secret de son coeur, une gloire, un point d'honneur, une excuse d'être très sensible, ensuite elle a mis là-dessus son exagération. Elle s'est donc livrée aux passions (je la suppose, ne la connaissant guère que par ses ouvrages) et a été toute étonnée de ne pas trouver le bonheur qu'elles donnent aux âmes passionnées. Une des causes qui, probablement, l'a mécontentée, c'est qu'elle s'était prédit le bonheur (tu vois que je prends son style) différent de ce qu'il est. Une ou deux fois par an on a de ces moments d'extase où toute l'âme est bonheur. Elle s'est figuré que c'était ça le bonheur et a été malheureuse de ne pas le trouver tel. Un peu d'étude de l'homme moral apprend la rareté de cet état délicieux; un peu d'étude de l'homme physique

15) Stendhal: *Œuvres intimes*, pp. 13-14.

16) 《En général, je sais que je suis très passionné et que par là je juge mal.》
(Stendhal: *Vie de Henry Brulard* 「journal, 3 février 1805」—Larousse, 1967— p. 57.)

17) 《Je suis trop sensible pour être impartial.》
(Ibid., 「journal, 4 février 1805」 p. 57.)

montre combien il est rare. Pour le produire, il faut un éréthisme (une chanterelle de violon lâche donne le ré; on la tend à son ton naturel, elle donne le mi; on la tend encore, elle donne le fa, mais bientôt elle se casse, elle est en éréthisme); voilà nos nerfs. L'état d'extase les met dans un état qui ne peut durer sans produire d'horribles douleurs.

Voilà, ma bonne amie, l'état où j'étais il y a deux ans. La recherche de ce bonheur, impossible avec notre corps, m'a donné des dispositions à la mélancolie et m'a donné une haine tant reprochée pour l'ennui. Ayant éprouvé cette maladie, je la distingue très bien dans Mme de Staël; je m'en suis guéri; la sienne l'a jetée dans une humeur terrible contre les passions. Si Mme de Staël n'avait pas voulu être plus passionnée que la nature et la première éducation ne l'ont faite, elle aurait fait des chefs-d'oeuvre. Elle a voulu sortir de son ton naturel, elle a fait des ouvrages pleins d'excellentes pensées, fruits d'un caractère réfléchissant, et il y manque tout ce qui tient au caractère tendre. Comme elle a voulu faire de la tendresse, elle est tombée dans le galimatias.

이 작품(스탈 부인의 『행복에 미치는 정열의 영향에 대하여』) 속에는 두 세 가지의 커다란 오류가 있다. 그런데 이 오류들은 모두가 한 가지 원인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작가의 과장인 것이다. 스탈 부인은 그렇게 감수성이 강한 사람이 아닌데 스스로 자신이 매우 감수성이 강하다고 믿었다. 그녀는 그렇게 되기를 몹시 바라고 있었으며,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감수성이 강하다는 것을 어떤 영광이나 명예로움 또는 어떤 번영의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어서 그녀는 그 점에 대해서 과장을 한 것이다. 결국 그녀는 정열에 스스로를 내맡기게 되었다(나는 그녀를 작품을 통해서밖에 알지 못하므로, 그녀에 대해서 추측을 할 뿐이다.) 그리고는 그 정열이 정열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녀는 깜짝 놀랐던 것이다. 그녀를 아마도 불만스럽게 했음에 틀림없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그녀 스스로, 있는 그대로의 행복과는 다른 행복을 자신에게 예언했다는 것이다(너는 지금 내가 그녀의 문체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겠지) 일년에 한 두 번 우리는 영혼 전체가 행복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순간을 맛보게 된다. 그녀는 바로 그러한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행복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녀는 불행에 빠졌던 것이다. 정신적 인간의 연구를 조금이라도 하다보면 그런 감미로운 상태가 얼마나 드문 것인지 알게 된다. 또한 육체적 인간에 대한 연구 역시 그러한 상태가 얼마나 희귀한 것인지 잘 보여 준다.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의 격발상태가 필요하다(느슨한 바이올린의 E선은 <레>소리를 낸다. 그 선을 본래의 높이로 조이면 <미>소리를 낸다. 더욱 더 조이면 <파>소리가 나지만 곧 줄이 끊어져 버린다. 즉 <적발상태>에 이른 것이다.) 우리의 신경도 마찬가지이다. 황혼감의 상태는 무시무시한 고통을 야기시키지 않고는 지속될 수 없는 상태속으로 우리의 신경을 집어 넣는 것이다.

나의 사랑스런 동생아, 2년전 나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우리의 육체로는 감당기 어려운 그러한 행복의 추구로 인해 나는 우울해지기 쉬운 성향을 갖게 되었고 권태에 대해 무척이나 비난받을 만한 증오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병을 겪어 보았기 때문에, 나는 스탈 부인에게서 그것을 잘 가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나는 그 병에서 치유되었으나 그녀의 병은 정열에 대한 아주 좋지 못한 기본속에 그녀를 내어던진 것이다. 스탈 부인이 천성적으로 그러한 것보다, 또한 초기 교육이 형성시켜 놓은 것 보다 더 정열적이 되고자 하지만 았았더라면 걸작품들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어조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녀는 심상속고하는 성격의 결실인 뛰어난 사고로 가득찬 작품을 썼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에는 다정한 성격에서 오는 바의 모든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녀는 다정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황설수설에 빠지버리고 만 것이다.¹⁸⁾

여기서 스탈달이 지적한 바 스탈 부인에게 있어서의 무엇보다도 큰 결점은 과장이었다.

18) Stendhal: *Correspondance* T.I (Pléiade). pp. 213-214.

스팔 부인에 대한 그의 견해를 다시 요약하자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데 그녀는 자신의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뛰어나다고 생각한 사람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의 감수성에 대하여 과장된 생각을 지니게 되고 정열에 몸을 맡긴다. 그러나 그녀는 그 정열이 정열적인 사람에게 주는 것과 같은 행복을 자신에게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그 정열은 거짓된 정열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녀는 본성과 첫 교육이 자신에게 이룩해 준 것 보다도 더 한층 정열적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된 정열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에게 〈행복 그 자체와는 다른 행복〉을 예측하여 나중에는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신사숙고형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성격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작품에서 시도했기 때문에 그녀는 황설패로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여기서 스팔달이 얻고자 하는 교훈은 명철함과 이성을 잃고 자신에 대한 정확한 성찰을 게을리 하였을 때의 오류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스팔달 부인의 작품을 평하는 스팔달의 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속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누구보다도 정열적인 인간인 그가 정열의 올바른 모습이란 과장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스팔달 작품의 주인공들이 수많은 감정들에 의해 자신들을 제어할 수 없으리만큼 큰 격정 속에 싸이게 되었을 때에도 늘 자신들의 여러가지 감정을 정리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닐 수 있었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스팔달에게 있어 정열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그 자신이 고귀한 것으로 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화되지 않은 정열은 일종의 병적인 상태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열은 격렬하고 미칠듯한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가 추구하는 정열이란 자신을 지배하려는 의지인 차원높은 감정에 의해서 다듬어진 승화된 정열을 말하는 것이어서, 무질서한 토로와 근거없는 행복에로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병적인 정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스팔달은 과장을 혐오했던 것이다. 그 과장은 위선과 통하고 따라서 거짓에 이르러 정열이 인간을 고귀한 곳에 이르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스팔달에 있어선 정열이란 고귀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¹⁹⁾ 그와 반대되는 위선을 유발시키는 과장을 피해야만 했던 것이다.

Un mot ridicule ou seulement exagéré a souvent suffi gâter les plus belles choses pour moi; par exemple, à Wagram, à côté de la pièce de canon quand les herbes prenaient feu, ce colonel blagueur de nos amis qui dit: *C'est une grande bataille de géant!* L'impression de grandeur fut

19) René Girard는 그의 저서에서 Stendhal의 고귀함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가 정신적 의미의 고귀함을 정열과 동의어로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흥미있는 관찰이다.

《Noblesse, au sens spirituel du terme, est donc très exactement synonyme de passion.》

(René Girard: *Mensonge romantique et vérité romanesque*, Grasset, 1961. p. 122)

irréremdiablement enlevée pour toute la journée.

내게 있어서, 우스꽝스럽거나 혹은 단지 과장되었을 뿐인 말 한마디로 인해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망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나그람 Wagram에서 대포 옆에 있었는데, 잡초 덩굴에 불이 붙자 우리 친구의 한 사람인 히풍선이 대령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전 거인의 전쟁이구만!》 순간 위대함에 대한 인상은 하루 온 종일 가서버리고 말았다.²⁰⁾

그러한 과장에 대한 혐오는 급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 부터 싹튼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소년시절부터 지닌 수학에의 열광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가 국립 공립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빠리에 오기까지 수학이 무엇보다도 그의 흥미를 끈 것을 보면 그것이 스팡달의 정신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는 수학을 그르노블에서 떠나는 수단으로 택하기는 했지만, 차츰 위선과 모호함을 용납하지 않는 학문으로서 수학자체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것은 정열적인 그의 기질을 제어하는데 끼쳤을 수학의 영향이 어떤 것이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갖게하고 있다.

장 프레보는 『스팡달에 있어서의 창조』에서, 스팡달을 《수학에 있어서 직관력을 지닌 사람》으로 보고 수학이 그의 문체에 끼쳐준 크나큰 역할을 강조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La rigueur mathématique en des sujets où elle est arbitraire, sera chez lui, dès le début, une ressource de style. Elle remplacera l'emphase et les grands mots qu'il s'interdit.

그것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주제들에서의 수학적인 엄격함은, 애초부터 그에게는 문체의 한 수단이 되나. 그가 스스로에게 금하고 있는 과장과 요란한 말들을 그 엄격함이 대신하게 되리라.²¹⁾

따라서 그 수학은 스팡달이 명석함을 잃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정열을 바라볼 수 있는 지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었다고 하겠다. 그렇게 형성된 정신속에서 생기는 정열은 과장을 하는 박연한 정열이 아니었다. 그리고 거짓된 약속을 하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승화된 정열>이 될 수 있는 정열이었던 것이다. 그처럼 내부속에서 결정(結晶)이 된 정열에 대한 그 정신적 자세는 그의 글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가 즐겨 쓴 짤막 짤막한 끊어진 문체 Style haché에서 성숙된 그의 사상과 일치되어 표현이 된다. 따라서 스팡달의 정열과 문학사상이 동시대인의 그것과 다른점을 찾아 내는데 있어, 평자들이 스팡달의 수식이 없는 문체 Style sec를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그 출발점을 삼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상력과 감수성을 내세우는 낭만주의 문학운동에 있어 이론적인 기수의 한 사람이었던 스팡달이 그 낭만주의를 발전적으로 극복하여, 그 다음을 이은 사실주의 문학운동의 선구자로 등장케 된 것도 그와 같은 정신적인 자세와 일치되는 그의 문체가 이룩

20) Stendhal: *Œuvres intimes*, p. 385.

21) J. Prévost: *La création chez Stendhal* (Mercure de France, 1951), p. 32.

한 문학적인 결실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땅달의 문체를 고찰하는 것은 그의 정열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그의 문학적인 사상발전을 파악하는데에 첩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한편, 그의 문체의 고찰은 그가 동시대의 문학사조를 어떻게 흡수하고 소화했으며, 그것을 지양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기회도 되리라고 여겨진다. 그는 『앙리 브뤼클라르의 생애』에서 미사여구를 어떻게 하이 싫어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Mes parents me vantaient sans cesse et à la nausée, la beauté des champs, de la verdure, des fleurs, etc., des renoncules, etc., etc.

Ces plates phrases m'ont donné pour les fleurs et les plates-bandes un dégoût qui dure encore. Par bonheur, la vue magnifique que je trouvai *tout seul* à une fenêtre du collège, voisine de la salle du latin, où j'allais rêver tout seul, surmonta le profond dégoût causé par les phrases de mon père et des pr(êtres), ses amis.

C'est ainsi que, tant d'années après, les phrases nombreuses et prétentieuses de MM. Chateaubriand et Salvandy m'ont fait écrire *Le Rouge et le Noir* d'un style trop haché. Grande sottise car dans vingt ans qui songera aux fatras hypocrites de ces Messieurs? Et moi, je mets un billet à une loterie dont le gros lot se réduit à ceci: être lu en 1935.

집안식구들은 나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역겨울 정도로, 들관, 신록, 꽃, 미나리아재 등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여 말하곤 하였다.

그 진부한 표현들은 꽃들과 화답들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혐오감을 나에게 주었다.

다행히도, 홀로 몽상하고자 찾아 가곤 했던 중학교 라틴어 교실 근처의 한 장가에서 **나 홀로** 발견한 멋진 광경은 나의 아버지나 그의 친구들인 신부들의 미사여구때문에 생긴 깊은 혐오감을 이겨내게 해주었다.

그 때문에, 수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샤프브리앙과 살방디의 운율이 잘 맞고 태깅부런 문장들이 나로 하여금 『적과 흑』을 아주 짤막한 문체로 쓰게 했던 것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이었다. 왜 그러냐 하면, 20년 후에 누가 그 사람들의 위선적인 너절할 문체를 생각할 것이라 말인가? 그래서 바로 나는 한장의 복권을 걸었는데 그 복권의 특상은 요컨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1935년에 읽힌다는 것.²²⁾

여기서 어린 시절에 갖게된 반항심에서 파급된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문체에 있어서도 그 기원을 찾아보면 소년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스땅달에게 있어서, 개인감정의 권리를 주장한 점, 공상과 상상력 그리고 꿈의 역할을 크게 평가한 점이라든가, 또한 여러가지 범죄와 사회의 잡다한 제재에 대하여 강한 반항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그가 낭만주의 작가들과 그 궤도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스땅달은 감정의 토로에 제동을 가하고 그 표현의 과잉을 자제할 줄 알게 됨으로써 자기시대의 문학사조에서 진일보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지 않은 정열이란 과장된 정열이고 또한 위선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짤막 짤막한 끊어진 문체는 자신이 실제로 체

22) Stendhal: *Œuvres intimes*, p. 194.

협한 정열이라는 감정을 최대한으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그에게는 삶에 대한 진지성과도 일치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가 앞에서 본 프랑스 낭만주의 운동의 이론적인 선구자의 한 사람인 스탈 부인의 끝에 대한 그의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자신과 동시대의 낭만주의 작가들과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스탈의 면모는 낭만주의문학의 거장의 한 사람인 샤토브리앙에 대한 뿌리깊은 혐오감에서도 또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1825년 6월 1일자 『New Monthly Magazine』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쓰고 있다.

Le meilleur des écrivains en prose est, croyons-nous, l'hypocrite le plus consommé de France. D'un bout à l'autre de l'année, le vicomte de Chateaubriand n'écrit probablement pas une seule phrase exempte de fausseté soit dans le raisonnement, soit dans les sentiments; de sorte qu'en le lisant vous êtes sans cesse tenté de vous écrier: «Juste ciel, que tout cela est faux, mais que c'est bien écrit!».

우리가 생각컨대, 가장 뛰어난 산문작가는 프랑스에서 가장 완벽한 위신자이다. 일년 내내 샤토브리앙 자작은 추론에 있어서나 감정에 있어서나 거짓이 없는 문장은 아마도 단 한줄도 쓰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의 작품을 읽으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외치고 싶어지는 것이다. 《맘소사,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 하지만 얼마나 잘 쓰여져 있는가!》

샤토브리앙은 추론에 있어서도 감정에 있어서도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과장된 미사여구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감정 자체도 믿을 수 없는 위선적인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스탈의 입장은 근대 프랑스 낭만주의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빅토르 위고의 끝에 대하여서도 관용을 베풀 수가 없었다. 스탈은 위고의 시인으로서의 재능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그의 과장된 산문은 소화를 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안면이 있는 처지였으나 피차가 경원하는 사이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위고는 스탈의 『적과 흑』을 몇페이지 읽다가 견디질 못하고 던져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M. Stendhal, quand j'essaie de le lire, m'écorche les yeux et le cerveau, comme le bruit d'une crécelle m'écorche les oreilles.

내가 스탈의 작품을 읽으려 했을 때, 마치 따르라기 소리가 내 귀에 거슬러듯이, 그의 작품은 나의 눈과 머리에 거슬렀다.²³⁾

여기서 우리는 체질적으로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두 사람은 피차 상대방들이 글을 쓸 줄 모른다고 주장을 했는데, 누구의 말이 과연 옳았는가는 후세에 와서 판단이 될 셈이다.

요컨대, 스탈은 당시 명예와 인기를 독차지했던 문단의 거장들인 스탈 부인, 샤토브리

23) Stendhal: *Vie de Henry Brulard* (Larousse), p.102에서 재인용.

양, 위고 들을 조금도 부러워 하지 않고 스스로 고독을 택하고 자신이 옳다는 길을 취하여 1935년에나 읽힌다는 도박을 한 셈이다. 그것은 그의 선견지명을 일러주는 한편 그가 얼마나 진실되게 자기 시대를 살고, 그것을 발전적으로 극복하였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판단은 되지 않을 것이다. 스탕달이 살고 있던 시대에 주류불 이루고 있던 문인들과 그와의 관계를 마르티노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는데, 그것은 흥미있는 관찰이라 할 것이다.

Que Stendhal, si différent de Hugo ou Lamartine, ait réellement été romantique semble parfois difficile à concevoir tant il le montre peu dans l'expression de ses sentiments. A-t-on remarqué toutefois combien les siens propres, comme ceux des personnages de ses romans, en dépit de la décence de son style, ont toujours été passionnés et extrêmes? Stendhal et ses héros se sont toujours plu à exalter l'individualisme le plus outrancier, à afficher un goût immodéré du songe intérieur, à magnifier la nature, et particulièrement les montagnes, les forêts et les lacs, à se plier aux enchantements de la nuit et de ses mirages, aux dissolvantes délices de la mélancolie. Lui-même a reconnu qu'autant que le Chatterton créé par Vigny, il était plongé dans des rêveries interminables, dans des inventions infinies, que sa sensibilité était trop vive et que ce qui ne faisait qu'effleurer les autres le blessait jusqu'au sang. Seulement il n'a jamais été pour sa part de ceux qui portent leur tête comme un Saint-Sacrement et il ne crut jamais que la société lui dut quelque chose. Jusque dans le dérèglement de la passion, il gardait de la pudeur et ne cessa d'éviter toute enflure, toute emphase et toute recherche de l'effet. Il réprouvait autant les images de clinquant que le lyrisme à grand spectacle. Il se montra toujours l'ennemi déclaré des déclamations, des protestations, des réclamations, des lamentations! Cela mérite bien qu'on ne le confonde jamais avec les grands romantiques de notre littérature, mais point que l'on dénie à cet écrivain du XVIII^e siècle une forte atteinte du mal du nouveau siècle.

위고나 라마르틴느와는 그렇게도 다른 스탕달이 실제로 낭만주의자였다는 것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로록 그는 그의 감정 표현에서 낭만주의적 성향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단정한 문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설 인물들의 감정처럼, 그 자신의 감정이 늘 얼마나 많이 정열적이며 극단적인 것이었던가를 알아 보았는지? 스탕달과 그의 작품의 주인공들은 극도의 개인주의를 높여주며, 내적인 꿈에 대한 과도한 취미를 과시하고, 자연을 특히 산과 숲과 호수를 찬미하며, 밤과 그 환영의 매혹과 우수의 그 교란적 쾌락 앞에 무릎 꿇는 것 등을 늘 즐겨왔다. 그 역시, 비니 Vigny에 의하여 창조된 샤넬롱 Chatterton 처럼, 끝없는 몽상과 창작에 빠져 있었고 자신의 감수성이 너무도 민감하며, 다른 이들에게는 가벼운 상처를 입힐 뿐인 것이 그에게는 피가 날 정도의 상처까지도 입힌다는 것을 그 자신 자인하고 있었다. 다만 그로서는 결코 성체(聖體)나 되는 듯이 자기의 머리를 들고 다니는 자들에게 속하지 않았으며, 사회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빚지고 있다고는 결코 믿지 않았던 것이다. 정열의 착란상태에서조차 그는 절도를 지키고 모든 과장과 부자연성 그리고 표현 효과의 추구를 항상 피하고자 했다. 그는 호화판의 서정성이나 허식적인 이미지 모두를 비난하였다. 항상 스스로를 수사적 허식, 형의문, 이의분 또는 비판조동의 반대자임을 공언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그를 우리 문학의 낭만주의 거장들과 결코 혼동하지는 않게 해 주고 있으나, 이 18세기의 작가가 새로운 세기의 병에 강하게 감염되어 있음을 부인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다.²⁴⁾

24) Henri Martineau: *Le cœur de Stendhal*, T. II, pp. 60-61, 여기서 말하는 cet écrivain du XVIII^e

프랑스 낭만주의의 거장들에게서 우리가 허식적인 이미지들, 또는 호화판의 서정성을 빼 버린다면, 그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죽여 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전주의가 주장하는 차가운 이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인 진리에 반항을 하는 그들, 개인적인 감정의 권리를 주장하고 예술에 있어서 자유를 주장하는 그 낭만주의자들에게서, 우리는 흔히 미사여구의 문체와 억양이 높은 향의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상에 불응하는 답답한 현실에 대한 격양된 비난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넘쳐흐르는 그들의 감정 속에 우리는 자체를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자아를 고양(高揚)한다든가, 정열적인 꿈을 지녔다든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든가, 사회적 내지 정신적인 억압에 대한 강력한 반항을 한다든가 하는 것 등으로 스땅달이 지닌 그 낭만주의 작가들과의 공통점을, 마르테노도 지적했듯이, 우리는 예사로 그냥 넘겨버릴 수 없다. 그러하지만 스땅달은 과장과 미사여구의 거부라는 단호한 정신적 자세의 결정인 짤막 짤막하게 끊어진 문체로서 낭만주의 작가들과 외양상의 구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한편, 그의 그러한 문체는 또한 끊임 없는 자기성찰과 진실로 자신이 느낀 감정을 최대한으로 올바르게 표현하려는 성실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내용적으로도 그 낭만주의 작가들과는 사상적인 결실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스땅달의 정열 또한 차원높은 감정이 지배하는 정열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스땅달이 평생동안 사랑해온 여인은 여러 명이다. 어렸을 때, 그의 지나치게 민감한 감수성과 많은 꿈은 극장서 본 배우에 대하여 사랑을 품게 했는데, 그 짝사랑에서 우리는 그의 여인관계의 두드러진 특징을 이미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어처구니없는 짝사랑의 이야기기를 알아보기로 하자. 그 배우는 귀블리양으로서,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가 어디에 묵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녀가 살고 있다는 거리를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배회를 한다. 그러나 그녀를 만났다면 쓰러져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하여 그녀가 묵고 있다는 끌레르가를 끝까지 걷고 난 다음,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그는 마음을 놓곤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아침 그녀를 멀리서 보고 말았던 것이다.

Un matin, me promenant seul au bout de l'allée des grands marronniers au Jardin de Ville, et pensant à elle comme toujours, je l'aperçus à l'autre bout du jardin contre le mur de l'intendance qui venait vers la terrasse. Je faillis me trouver mal et enfin je *pris la fuite*, comme si le diable m'emportait, (...) et j'eus le bonheur de n'en être pas aperçu. Notez qu'elle ne me connaissait en aucune façon. Voilà un des traits les plus marquants de mon caractère, tel j'ai toujours été (même avant-hier). Le bonheur de la voir de près, à cinq ou six pas de distance, était trop grand, il me brûlait, et je fuyais cette brûlure, peine fort réelle.

어느날 아침, 나는 공원의 큰 마로니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산책길 끝에서, 늘 그러듯이 그녀에

siècle이란 18세기 계몽 사상과 Idéologues의 철학적인 영향을 받은 진보적인 스땅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리라.

대하여 생각을 하며 혼자 산보를 하다가 관리인 집 벽에 맞닿은 정원 저쪽편 끝에서, 테라스를 향해 오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였다. 나는 까마칠 듯하여, 결국은 악마에 홀린 듯 도망을 쳤다(...). 나는 다행히도 그녀 눈에 띄지 않았었다. 주의해둬야 할 것은 그녀가 전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이 내 성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이며, 나는 늘 그러했던 것이다(그저께조 차도). 그녀를 가까이서 대여섯 발자국의 거리에서 볼 수 있다는 행복이 너무도 커서 나는 온몸이 불타오르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아주 현실적인 고통인 그 화상(火傷)에서 도망을 쳤던 것이다.²⁵⁾

그러한 소년시절의 환상적인 사랑에서, 청년기에 그가 사귀어 배우 멜라니 길베르와의 사랑은 보다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스땅달은 그녀가 마르세이유 극장에서의 공연을 위해 그 곳으로 내려가자 함께 따라가서 식료품점에 근무를 하면서, 셰익스피어에 심취하며 멜라니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다. 그리고 한때 사업에 손을 대고자 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땅달의 꿈많은 끈질긴 정열을 보여주는 여인관계는 밀라노의 여인 안젤라 피에트라그류아와의 관계라 할 것이다. 스땅달이 그 여인을 처음 만난 것은 1800년에 처음으로 그가 이태리에 갔었을 때이고 그녀를 자기의 정부(情婦)로 삼은 것은 11년후인 1811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젤라는 스땅달과 사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그를 골탕먹인 여인이다. 우리가 여기서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것은 11년 동안이나 스땅달이 품고 있었던 그 정열적인 꿈이라 할 것이다. 마르페노는 안젤라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Avec sa taille imposante, sa magnifique chevelure noire, ses yeux profonds, son expression grave et sensuelle elle avait bien de quoi subjuguier un soupirant de dix-sept ans. Il se sentit amoureux dès la première approche: on sait qu'il ne triompha pourtant à son tour de cette beauté peu farouche qu'à son second séjour en Italie, onze ans plus tard. Jamais toutefois il ne cessa durant ce temps de rêver au bonheur que serait la possession de cette femme emportée, voluptueuse, superbe, l'aimant comme lui-même l'aimerait.

당당한 체격, 멋진 검은 머리카락, 깊은 눈매, 또 근엄하면서도 관능적인 표정을 지닌 그녀는 17세의 연모하는 청년을 사로잡을 만한 충분한 뒷인가를 갖고 있었다. 그는 처음 만날 때부터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그는 11년후인 두번째의 이태리체류 때에나 별반 유혹하기 어렵지 않은 그 미인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 동안에, 그 격하면서 육감적이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 그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게 될 그 여인을 소유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될 행복에 대해 그는 계속해 꿈을 꾸었던 것이다.²⁶⁾

그러나 스땅달이 그 생애에 있어 가장 다정한 감정을 지니고 정열적인 사랑을 품은 여인은 마펠드 비스콘티니였다. 1818년에 스땅달이 그녀를 밀라노에서 만났을 때, 그 여인은 20세나 연상의 남편인 장 델보우스키와 헤어져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를 부정(不貞)하다고 타타며 못살게 구는 남편과 별거중인, 두 아들을 가진 자유주의사상을 지닌 성숙한 여

25) Stendhal: *Œuvres intimes*, p. 212.

26) H. Martineau: *Le cœur de Stendhal*, T.I, p. 133.

자였다. 스탕달은 그녀에게 열렬한 사랑의 표시를 여러가지로 했으나, 자신에 대한 그 여인의 감정은 전혀 몰랐던 불행한 사랑이었다. 그러나 스탕달이 지냈던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인 여성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 여인에게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었다면 그중의 한 부분인 고귀한 여인을 열렬히 사랑한다는 그의 꿈은 마델드를 만났으로써 이루어진 셈이다.

Stendhal a daté du 4 mars (1818) le commencement de son amour. «On ne pouvait oublier cette tête sublime lorsqu'on l'avait vue une fois, mais il faut dire que tous les êtres vulgaires et prosaïques ne l'avaient jamais vue.» C'était une beauté lombarde à l'ovale exquis, aux lèvres minces, au front suave, aux grands yeux bruns, timides, et mélancoliques que Stendhal croyait retrouver dans *l'Hérodiade* du Vinci ou, plus exactement, dans la *Salomé* de Luini qu'il avait vue à Florence. Au moral, celle qu'il définissait «la petite tête la plus altière de Milan» se distinguait surtout par un souci du qu'en dira-t-on, non exclusif d'une certaine originalité de conduite, de la mélancolie, de la hauteur, de l'indifférence de fortes convictions libérales. Beyle et elle avaient des amis politiques communs qui, après le départ de son infortuné soupirant, valurent à cette ardente patriote d'être inquiétée par la police autrichienne.

스탕달은 그의 사랑이 시작된 것을 1818년 3월 4일로 적고 있다. 《그녀의 그 숭고한 모습을 한번 본 사람은 그것을 잊지 못했다. 그러나 말해 봐야만 할 것은 비속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품위있는 계란형 얼굴의 롬바르디아 미인으로, 얇은 입술, 그윽한 이마, 수줍음을 떠며 우수에 잠긴 커다란 갈색 눈을 지닌, 스탕달이 다빈치의 『에로디아드』에서, 보다 정확히는 그가 플로렌스에서 본 루이니의 『살로메』에서나 다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인이었다. 그가 《밀라노의 가장 오만한 작은 머리》라 정의를 내린 그녀가 정신적인 면에서 남과 다른 것은 특히 남들이 뭐라 말할 것인가에 대해 염려를 하는 것으로써 였지만, 그 염려가 행동에 있어서의 어떤 독창성, 우수, 거만함, 그리고 자유주의에의 강한 신념에서 오는 냉담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벨로와 그녀는 서로 같이하는 정치적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로 인해 그녀의 불운한 연모자가 떠난 뒤 그 열렬한 여류애국자는 오스트리아의 경찰에 의해 쫓기는 운이 된다.²⁷⁾

그러나 스탕달이 마델드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그 사연이 절실하고 불붙는 사랑에 온통 싸여있지만, 그 모두가 불행한 연모자가 호소하는 애절한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의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불행은 스탕달에게 꿈을 품게해 주고, 사랑의 빈민 속에 갖게 되는 고통은 그의 감정을 더 한층 돌우어주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1818년 10월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마델드에게 보내고 있다.

Je suis bien malheureux, il semble que je vous aime chaque jour davantage et vous n'avez plus pour moi-même la simple amitié que vous montriez autrefois. (...)

Je vous aime beaucoup plus loin de vous qu'en votre présence. Loin de vous je vous vois indulgente et bonne pour moi, votre présence détruit ces douces illusions. [4 octobre 1818].

27) André Billy: *Ce cher Stendhal...*, pp.135-136.

나는 아주 불행하오. 나는 당신을 매일 점점 더 사랑하는데 당신은 내게 전에 보여준 단순한 우정조차도 이제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앞에 있을 때보다도 멀리 있을 때 더욱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서 멀리 있을 때 내게 관대하고 친절한 당신의 모습을 나는 보는데, 당신 앞에서는 이 달콤한 환상이 깨어져 버리는군요. [1818년 10월 4일]²⁸⁾

그러나 마멜드의 태도는 스땅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되게 했던 것이다.

Trouveriez-vous inconvenant que j'osasse vous demander la permission de vous voir un quart d'heure, une de ces soirées? Je me sens accablé par la mélancolie. Mon amitié sentira tout le prix d'une marque de bonté dont le public ne s'occupera certainement pas. Vous pourrez vous livrer sans danger à la générosité de votre belle âme. Je ne serai pas indiscret; je ne prétends rien vous dire; je serai aimable. (...) [3 janvier 1821]

내가 어느 한 저녁나절에 15분간만 당신을 만나보게 해달라고 감히 청한다면 그것을 무례하다고 여기시겠습니까? 나는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의 우정은 당신이 나의 청을 받아들이는 호의의 모든 장애를 충분히 느낄 것이며, 일반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에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위협없이 당신의 아름다운 영혼의 관대함에 스스로를 내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제넘는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무엇을 이야기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상냥할 것입니다(...). [1821년 1월 3일]²⁹⁾

그는 마멜드의 걸을 떠나 일방적인 그녀에 대한 열렬한 사랑 속에서 아름다운 정열의 불꽃을 혼자서 태울 길 밖에 없었다. 드디어 그는 마멜드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스땅달의 마멜드에 대한 사랑이 그토록 크게 그의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아마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으리라. 빠리에 돌아와서도 그녀에 대한 추억은 가지지 않았으며 3년 후에 끌레망뎬느와의 사랑을 갖게 되면서 부터 비로소 그 사랑의 쓰디쓴 상처에서 풀려 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에도 마멜드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가셔진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죽은 것을 스땅달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도 아름다운 몸 속에 감추어진 이 천사같은 영혼이 1825년 세상을 떠났다.》 마르띠노는 특히 『뤼시앵 퇴벤』 속의 주인공이 열렬히 사모하는 여인을 묘사할 때, 스땅달이 누구보다도 마멜드를 생각하고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마멜드에 대한 스땅달의 비련에 대해서 마르띠노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멜드에 대한 스땅달의 사랑의 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견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L'amour pour un coeur comme le sien n'est qu'une des façons, non la plus paisible certes, ni la plus confortable, mais la plus enivrante, la plus excitante de chercher le bonheur. Toutefois le bonheur atteint, comme l'amour assouvi, se résout aussitôt en fumée. Aussi son existence entière c'est en poursuivant l'amour que ce théoricien l'a le mieux goûté. Et si dans quelqu'un de ses

28) Stendhal: *Correspondance*, T.I, p. 940.

29) *Ibid.*, p. 1055.

livres ses héros parviennent au comble de leurs désirs, tout de suite l'auteur coupe court à leur roman.

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에 있어 사랑이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은 가장 평온한 것도 물론 아니고 편안한 것도 아니지만, 가장 열광적이고 가장 자극적인 행복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지만 채워진 사랑같이, 행복도 이루어지고 나면 언제나 곧 연기와 같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 따라서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이 이론가가 행복이란 것을 가장 잘 맛보았던 것은 바로 사랑을 추구하면서인 것이다. 그래서 그의 책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주인공들이 그들의 욕망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면 곧 작가는 그네들의 소설을 끝내버리고 마는 것이다³⁰⁾

마뎔드와의 사랑과는 그 양상이 다르지만, 스팅달을 열렬히 사랑한 여인은 망피 Mentì (귀리알 백작부인)였다. 그녀는 장군의 부인으로서, 스팅달이 그녀의 부모와의 친교관계 때문에 일찍부터 알고 있던 여인이었다. 나이 어린 그녀의 맨발을 인상깊게 보았던 스팅달은 그러한 인상을 가진지 8년후에 성숙한 여인이 된 그녀를 보고 사랑을 느꼈다. 그가 자신의 불품없는 용모와 수줍음때문에 주저하다가 드디어 사랑을 고백하게 된 것은 2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인 1824년이였다. 스팅달의 고백이 있자마자 두 사람은 똑똑 우와 같은 정열적인 사랑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 그리하여 대낮에 또는 비밀리에 그들의 밀회는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부녀와의 관계인 만큼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고 항상 조심을 해야 했던 사랑이었다. 따라서 40세가 넘은 스팅달은 그러한 밀회가 야기시키는 갖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불편과 고난을 이겨내야 했었다. 한번은 지하실에 숨어서 사흘동안이나 전디며 정부가 갖다주는 음식을 먹고 지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런 한편 그 사랑에는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그것은 괴팍한 스팅달과 환상적인 망피의 성격차이 때문에 오는 갈등이 자주 그들을 싸우게 했기 때문이다. 스팅달은 너무나 쉽게 몸을 맡기는 연인에 대해 불평을 털어 놓았고, 것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견디겠다는 망피의 애소(哀訴)는 마치 철없는 젊은이들의 사랑싸움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스팅달은 그녀와 사귀는 동안, 서로 나눈 편지들을 통해 비판과 다정의 쌍곡선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는데, 2년동안에 스팅달은 오백통 이상의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같은 불붙는 사랑을 하고 난 다음, 그들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하여, 결정적으로 헤어지게 된 것은 1836년이였다고 한다. 우리는 귀리알 백작부인과 스팅달의 사랑의 사연을 보면서 줄리앙 소렐과 레날부인의 사랑의 장면을 환기치 않을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도 귀리알 백작부인과의 사랑에서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는 것은 그것이 공유된 정열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랑 속에서 온 몸과 마음을 불사른 정열가 스팅달, 즉 앙리 벨트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가 그녀와 헤어지게 되었을 때의 메리베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그녀와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을 지녔던 것인가 잘 말해주고 있다.

30) H.Martineau: *Le cœur de Stendhal*, T.I, p. 409.

En 1836, je le revis après une longue absence. Nous nous étions donné rendez-vous à une trentaine de lieues de Paris(...). Là il me parla de ses amours avec une émotion profonde. C'est la seule fois que je l'ai vu pleurer. Une affection qui datait de très loin n'était plus partagée. Sa maîtresse devenait raisonnable, et lui était demeuré fou comme à vingt ans. (Comment pouvez-vous m'aimer encore? disait-elle, j'ai quarante-cinq ans) -Pour moi, me disait Beyle, elle a l'âge qu'elle avait (lorsqu'elle s'est donnée à moi pour la première fois.) Il voyait dans un avenir prochain la rupture d'une liaison qu'il avait toujours chérie. Une pensée à laquelle il reportait tout allait être effacée. Il me racontait les témérités de cette femme aujourd'hui si prudente, et ces souvenirs le transportaient. Puis, avec l'esprit d'observation qui ne l'abandonnait jamais, il détaillait tous les petits symptômes, toutes les indications d'indifférence croissante qu'il avait dû remarquer.

1836년 오랜 부재(不在)끝에 나는 그를 다시 만났다. 우리는 파리에서 120키로쯤 떨어진 곳에서 만날 약속을 했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사랑을 아주 감동적으로 나에게 얘기해주었다. 그가 우는 모습을 본 것은 그 때 뿐이었다. 오래 전에 시작되었던 애정이 이제 서로 함께 나눌 수 없는 애정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의 정부(情婦)는 이성을 되찾았는데, 그는 20세 때처럼 미친듯한 상태에 머물러있었다. 《어떻게 아직까지 저를 사랑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마흔다섯이예요라고 그녀가 말하곤 했으나 벨르가 내게 말을 했는데— 나에게 있어서 그녀는 그녀가 처음으로 자기몸을 내게 내맡겼을 때의 그 나이로 생각했던 것이었어》. 그는 자신이 항상 귀중히 여기던 하나의 관계가 가까운 장래에 단절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모든 것을 거기에 몰리던 생각이 곧 소멸될 참이었다. 그는 이전 너무나도 신중해진 그 여인이 얼마나 무모했던가에 대해 내게 이야기했고 그 추억들로 인해 그는 감정이 격해졌다. 이어, 절대로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관찰의 정신으로 그는 모든 사소한 징후들, 그가 주목해 줘야 했던 가중되는 무관심의 모든 표시들을 자세히 이야기 하였다.³¹⁾

그외에 그 정열의 불꽃이 대단히 맹렬하고 높이 불타올랐으나 1개월밖에 그 사랑이 가지 않았고, 번덕스럽고 정속치 못해 드디어 절친한 친구인 마레스트와 의를 상하게 한 알베르트 뒤방프레, 그리고 자기 친척이며, 그르노블을 떠난 이후 줄곧 그 신세를 진 베에르 다뤘의 부인인 알렉상드린느에 대한 사랑, 나아가서는 《나는 당신이 늙고 추하다는 것을 오래 전 부터 잘 알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열아홉살이나 위인 스팅달을 정열적으로 껴안고 몸을 맡긴 29세의 이테리치녀 지올리아 리니에리—스팡달은 그녀와 결혼할 것을 꿈꾸고 서로가 노력했으나 실패로 그쳤다—등, 스팅달의 사랑에 있어 스팅달에게 정열의 불꽃을 일게 한 여인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상, 사랑은 늘 내게 가장 커다란 일 혹은 유일한 일이었나》³²⁾라고 주장한 스팅달에게 있어 그 모든 여인들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일 뿐 아니라, 스팅달의 소설작품 속에서 독자들을 매혹시키는 여주인공들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의 3대소설의 여주인공들은 작가 스팅달이 실인생에서 만난 상기의 여인들을 배합해서 만들어 놓은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스팅달이 실제로 체험한 사랑을 살피는 동안, 그의 소설에서 느꼈던 여주인공들의 모습과 호흡을 그가 상대했

31) André Billy: op. cit., pp. 186-187에서 재인용.

32) 《En effet, l'amour a toujours été pour moi la plus grande des affaires, ou plutôt la seule.》
(Stendhal: *Œuvres intimes*, p. 212.)

던 여인들에게서 또다시 느끼곤 하는데, 그러한 느낌에 대하여 많은 스탕달 연구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 한편 사랑에다 더없는 환희를 느끼며 몸을 맡기는 그의 모습과, 그 사랑에서 정신을 풍요케 하는 동시에 숭고함의 경지에까지 도달하는 스탕달의 실인생을 보는 동안에, 그의 소설의 남주인공들이 곧바로 스탕달은 아니더라도 그와 피를 나눈 정신적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스탕달이 위에 말한 여인들과의 관계속에서 지니는 영원한 젊음은 쥘리앙, 파브리스, 뤼시앵 등의 젊음과 상통하고 있다. 그러한 것에서 스탕달 소설의 큰 매력인 때문지 않은 젊음의 비밀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사랑으로써 스탕달은 자신의 반항의 꿈을 지닐 수 있게 되었고 정열에 의해 승화된 감정을 지닐 수 있게 되었으며 위선과 저속한 환경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으며 정신적으로 고귀한 무엇인가를 늘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정열에 빠지지 않으려는 그의 소설의 남주인공들과도 일치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맹렬하고 온몸을 불사르게 하는 열광적인 정열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비판하고 검토하는 쥘리앙, 파브리스, 뤼시앵 속에서 바로 스탕달의 모습을 본다면 지나친 비교라고 하겠는가?

스탕달에게 있어서 정열이란 어떠한 것의 병적인 사랑이 아니라 보다 높은 것으로써, 환원하자면 고귀한 삶에로의 지향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정열은 행복한 삶에의 사랑과도 상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 정열이 지향하는 행복이란 <이성(理性)과 관계있는 일>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병적인 사랑과는 오히려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스탕달이 갖고 있는 특징의 하나인 반항(révolte)에 대하여 정열이 지니는 의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사랑이 밑에 깔린 그 정열이 없었다면 그 반항의 내용이 거부에서 자기 발전의 토양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지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탕달이 지니는 또 하나의 특징인 해방(affranchissement)에로의 지향에 있어서도 그 정열이 지니는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스탕달에게 있어서 반항은 정열이 있음으로써 승화된 감정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 그의 꿈은 젊음을 잃지 않은 채 보다 높은 차원으로의 탈출이 가능케 되었다. 그러나 그 탈출이 한숨과 탄식을 동반한 세기병적인 고뇌를 지닌 도파가 아니라 진정한 해방이 된 것은 그가 지녔던 정열이 위선과 저속에 상통되는 거짓된 정열이 아닌 그것이였기에 가능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Bibliographie

o Textes de Stendhal:

Stendhal, *Œuvres Complètes*, publiées sous la direction de Victor Del Litto et Ernest Abra-

vanel (nouvelle édition), 49 vols, Genève, Edito-Service S.A.

_____, *Œuvres intimes*, par Henri Martineau,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Gallimard, 1955.

_____, *Correspondance*, par Henri Martineau et V. Del Litto,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Gallimard, tome I, 1962; tome II, 1967; tome III, 1968.

_____, *Vie de Henry Brulard*, par André Dulière, Paris, Librairie Larousse, 1967.

o Ouvrages consultés:

Jean Prévost, *La création chez Stendhal*, Paris, Mercure de France, 1951.

Paulette Trout, *La vocation romanesque de Stendhal*, Paris, Editions Universitaires, 1970.

Henri Martineau, *Le coeur de Stendhal*, Paris, Albin Michel, 1953, 2 tomes.

André Billy, *Ce cher Stendhal...*, Paris, Flammarion, 1958.

André Maurois, *De La Bruyère à Proust*, Fayard, 1964.

René Girard, *Mensonge romantique et vérité romanesque*, Paris, Bernard Grasset, 1961.

«Résumé»

Les passions chez Stendhal

Won Yoon Soo

Dans la présente étude, en observant à fond la *Vie de Henry Brulard*, oeuvre autobiographique de Stendhal, nous avons essayé de regarder de près sa vie telle qu'elle était; et puis nous en avons dégagé un des éléments essentiels: les passions. Ce sont les motifs d'une importance primordiale de ses actions. Elles ont donné de la force, de l'intensité, et de la grandeur à sa vie, puisqu'il avait écrit: "Avec les passions, on ne s'ennuie jamais; sans elles, on est stupide." Après quoi, en analysant ces motifs, nous avons étudié la relation étroite qu'ils pourraient avoir avec les trois oeuvres romanesques: *Le Rouge et le Noir*, *La Chartreuse de Parme* et *Lucien Leuwen*.

D'abord, nous avons étudié ce qu'étaient les passions pour Stendhal. Selon lui, ce sont les vraies passions qui donnent de l'énergie, et celle-là qui hisse l'homme au-dessus de l'animal; mais il y ajoutait: "Je cherche à arracher de mon âme tout plein de fausses passions. J'appelle fausses passions, celles qui nous promettent, dans telles situations, un bonheur que nous ne trouvons pas lorsque nous y sommes arrivés."

Ensuite nous avons constaté que sa sensibilité élevée et son imagination instiguée par la lecture lui donnaient beaucoup de choses à dire et qu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il cherchait à se défendre de l'exagération de la phrase. Nous avons bien compris que son enthousiasme pour les mathématiques contribua beaucoup à le libérer des fausses passions.

Et puis, nous avons essayé de montrer qu'il faisait tous les efforts possibles pour être sec, qu'il voulait imposer la retenue à son coeur qui croyait avoir beaucoup de choses à dire. Autant que cette ambition était tenace, autant la réalisation en était difficile; pourtant Stendhal y parvenait avec la création de son propre style.

Enfin, nous avons jeté un coup d'oeil sur ses relations sentimentales qui ont exercé une grande influence sur sa vie agitée et son oeuvre créatrice.